

확산되는 해외 대북방송, 英 BBC 합류...“北주민 30% 청취”

미국 일본 이어 유럽서도 북한 공중파 전송 대열 합류

북한 당국 “방송 청취시 처형” 주민 의식 변화 영향 민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공중파 전송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 방송(VOA), 일본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후쿠사토노7채(고향의 바람) 방송과 민간 차원의 시오카제(바다바람) 방송이 대북방송을 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KBS한민족방송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다.

특히 이번 BBC의 대북방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시작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BBC는 하루 30분 분량의 뉴스를 북한 시간 기준으로 단파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중파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반복해 방송한다. 단파는 5810 kHz, 9940 kHz 두 개 주파수를 사용하고, 중파는 1431 kHz 주파수를 사용한다. 단파는 방해전파에 약하기 때문에 대북방송들은 북한당국의 방해를 피해 수시로 주파수를 바꿔주는데 BBC도 11월부터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BBC는 첫 방송에서 미군의 B-1B 폭격기의 한반도 작전 전개와 독일 총선 등의 최신 뉴스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인터뷰 등을 전했다. 평양 합흥, 청진 등 북한 주요 지역의 날씨 예보도 포함시켰는데 정확한 일기예보는 북한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BBC는 지난 8월 북한을 포함해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등 12개국 언어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왔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오랜 기간 내전과 국경 분쟁에 시달려 왔으며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지난해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김씨 일가가 60년 이상 통치해온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니 힐 BBC 사장은 최근 대북 방송 개시 결정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정보 제공 사정이 가장 열악한 정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 확장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BBC의 대북방송 개시에 대해 북한은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BBC 측에 수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북한 당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1997년 자유아시아방송이 대북방송을 시작하자 북한 노동신문은 “비밀한 방송선전 놀음”이라고 비난했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면 처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이 2004년 10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2006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북한이 대북 라디오방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 세계의 다양한 뉴스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14년 탈북한 평양 출신의 김애란(가명)씨는 “(대북 방송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지만, 라디오 방송 내용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니 점차 라디오가 전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탈북을 결심하는 데도 큰 영향이 미쳤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 ‘109 그루뎀’을 만들어 북한 전역에서 외부 라디오 방송 청취자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북한 내 청취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인



권정보선터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19.8%가 한국을 포함한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로버트 킹 당시 미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34%가 정기적으로 해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북한 주민의 10~30%가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탈북자 김애란씨는 “북한에서 몰래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이 꽤 많을 것”이라며, “2000년대 중반 109그루뎀이 단속하던 시기에 평양에서만 5만대의 단파 라디오가 적발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발효해 대북방송을 확대하자 국내외 일부 진보 좌파세력에서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BBC의 대북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비난 의견을 찾기 어렵다. 이는 북한이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안팎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

北 주민들, 한국 노래부터 듣다 점차 뉴스 쪽으로

2008년 5월 북한의 김재경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한 한국의 한 언론사의 보도를 대북방송이 인용하자 그날 평양 시내에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김재경은 김정일

혀 있다며 모바일 사진을 보도했다. 이를 대북방송이 또 인용보도하자 이날 평양에서는 그의 망명이 오보라는 소문이 다시 퍼졌다. 당시 평양에 살고 있었던 2013년

하지만 김씨는 “당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말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밝히지도 않았고 그걸 묻는 사람도 없었다”면서 “모두 나처럼 속으로만 짐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에서 외부 라디오 청취는 큰 범죄로 취급된다.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북한에서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탈북자들은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국의소리 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부분의 대북방송은 자정 무렵에 방송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이 처음 외부 라디오

를 듣게 되는 것은 무작정 주파수를 돌리다가 우리말 방송이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에서 라디오나 카세트 등을 구입하면 먼저 체신소(우체국)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북한 채널 외에는 청취할 수 없게 고정 납땜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몰래 고정 납땜을 풀고 주파수를 돌리다가 한국어 방송을 잡하게 되는 것이다.

치렁이나 어선에서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물차나 어선에 내장된 라디오는 원래 다 뜯어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고, 또 작업을 혼자 할 때가 많아서 비교적 쉽게 주파수를 돌리며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밀무역이 많아지면서 중국 조선족 상인이 가지고 온 단파 라디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전파가 잡히면 방송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처음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가요이다. 북한의 혁명가와 다른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에 빠져 라디오를 자주 청취했다는 증언이 많다.

그 다음은 한반도 관련 뉴스와 탈북자 정착 소식이다.

특히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큰 관심거리이다. 북한에서 굶기시하는 김씨 일가에 관한 내용과, 북한에서 들을 수 없는 북한 내 뉴스도 듣고 싶어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같은 경제 뉴스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북방송은 1980년대와 90년대는 주로 KBS사회교육방송과 미국의소리 방송이었다. 합흥 원산 등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본 NHK 한국어

방송도 잘 들린다고 한다. 처음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때는 북한과 다른 아나운서의 말투와 한국 노래 등에 이끌려 듣기 시작하지만 점차 뉴스나 정치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같은 사건을 놓고 북한내 뉴스와 비교해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게 되면서 점차 외부 라디오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2011년에 탈북한 원산 출신의 천영일(가명)씨는 “2000년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사과했을 때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과 외부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이 달랐다”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라디오를 듣다 보니 라디오 내용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천 씨의 언급한 이 대목이 대북방송이 필요한 이유인 셈이다.

뉴스

대부분 무작정 주파수 맞추다 우리말 나오면서 우연히 청취
탈북자 동향도 큰 관심...북한 내 뉴스와 비교하며 사실 판단

서기실의 부부장으로 마약 밀매와 위조 지폐 발행으로 김정일의 비자금 조성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이를 뒤 한국의 다른 언론사가 김재경이 사실은 3년 전인 2000년 6월에 사망해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

에 탈북한 김영(가명)씨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오보까지도 평양 시내에 바로 소문나는 것을 보고 나뿐만 아니라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